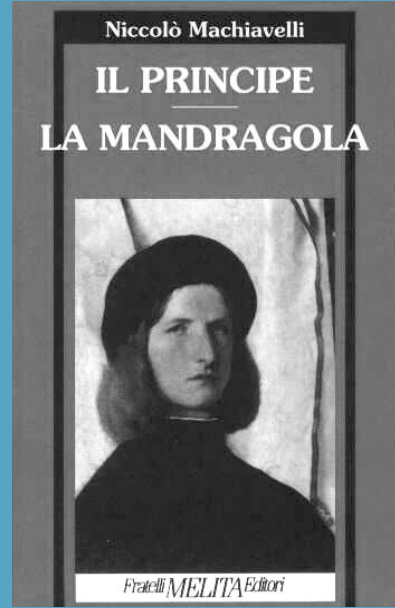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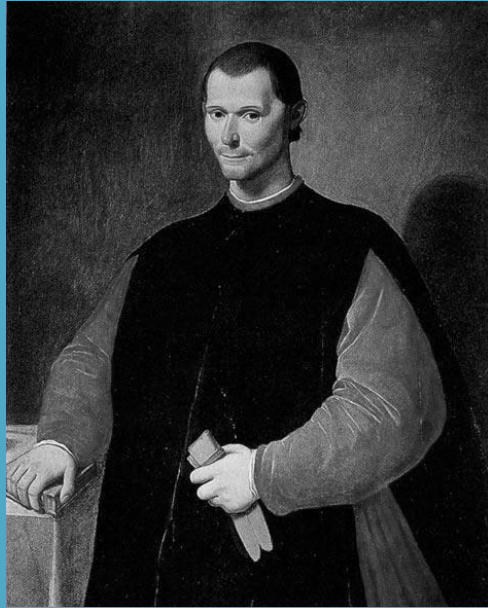


군주론



유홍림 (중어중문학과교수)

고전은 우선 낯설다. 면식 없는 인물들의 삶과 생각 속으로 용기 내어 뛰어들고 나면 어리둥절하여 빨리 벗어나고 싶어지기 십상이다.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한층 넓어짐을 느낀다. ‘지식’의 획득이 아닌 ‘지혜’의 공감을 위해, 나아가 새로운 질문을 제기할 수 능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는 고전을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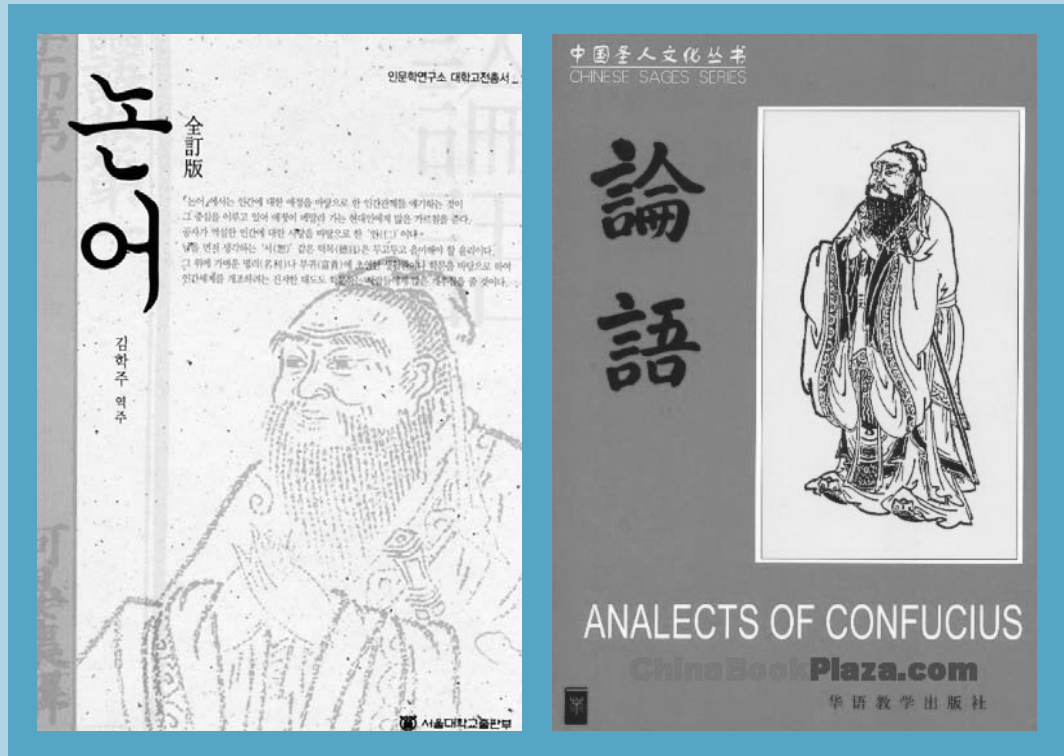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한편 익숙한 듯하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면 대부분 낯선 인물들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악(惡)의 교사,’ ‘냉혹한 현실주의자’라는 명성에 걸맞을 듯한 몇몇 구절들을 확인하기 위해 <군주론>을 읽을 필요는 없다. 권모술수의 책략과 정치적 위선은 이미 상식이 아닌가? 인내심을 발휘하여 마키아벨리가 자신의 체험과 독서를 통해 밝히려 한 정치세계의 “유효한 진실”을 찾아봐야 한다.

이번 호 <열린 지성>부터 신설된 코너인 “고전 산책”에서는 서울대 선정 권장 도서 100선을 중심으로 교수님들의 비평에세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전을 바라보는 혜안을 기르는 조용한 산책을 제안합니다. 그 첫 발걸음으로 유흥림 선생님이 소개하시는 <군주론>과 김월희 선생님이 소개하시는 <논어>를 만나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등의 고전철학 및 기독교 전통, 그리고 당시 지배적이었던 인문주의에 입각해서는 인간과 정치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은 가히 혁명적이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상상의 국가”가 아닌 역사적 현실뿐이다. 특히 건국과 개혁의 주체인 군주에게 필요한 가르침은 역사적 인물들의 행위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마키아벨리가 과거와 현실의 사례들을 반추함으로써 얻은 “유효한 진실”은 무엇일까? (1) 정치는 현세적 목적을 추구하는 세속적 행위이다. 내분에 의한 무질서는 개인과 집단의 자유를 위협하기 때문에 질서와 안정은 모든 문명의 절대적 기초이다. (2)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무력이다. “무장한 예언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3) 정치세계는 결과의 세계이다. 모든 행위의 정치적 의미는 ‘역사적 실효성’의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 (4) 정치세계에서 부패와 위기는 불가피하다. 정치적 삶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며, 우연과 불확실성은 인간의 의도를 배반한다. (5) 혼돈에 질서를, 질료에 형상을 부여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의 ‘비르투’에 의해서만 위기의 극복이 가능하다. 인간의 양면성과 정치세계의 아이러니에 대한 통찰력, 결과를 중시하는 신중한 판단력, 운의 여신 ‘포르투나’를 제압할 수 있는 과단성과 용기, 상식의 윤리를 넘어선 가치관 등 개혁군주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은 매우 복합적이다.

<군주론>을 읽다 보면 곳곳에 숨어 있는 예지를 발견한다. 때로는 섬뜩함과 혼란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마키아벨리의 실존적 고민에 공감하기도 한다. 이제 그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체험과 생각을 동원해 질문을 제기해 보자. (1) 마키아벨리는 과연 현실주의자인가? 정치현실에 대한 그의 냉철한 이해와 분석은 이런 질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위기 극복의 처방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위에 열거한 다소 신비스러운 자질과 역량을 갖춘 개혁군주의 등장을 기대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오히려 다수의 지혜를 모아 잘 짜여진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참여와 민주적 리더십 육성을 통해 자율적이고 협동적인 개혁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2) 마키아벨리가 비판한 플라톤이나 키케로 등의 정치철학자들이 정치의 “유효한 진실”을 과연 몰랐을까? 그들의 대화편에는 마키아벨리에 버금가는 현실주의자들의 논변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들의 형이상학과 자연법사상은 마키아벨리적인 “유효한 진실”을 반박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 아닐까? 그러면 그들은 왜 엄연한 현실을 넘어선 대안적 진실을 추구했을까? (3) 도덕과 정치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가? 오히려 도덕과 정치의 결합이 권력의 정당성 확보와 유지에 유리하지 않은가? 물론 마키아벨리의 세계에서 도덕은 정치의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수단으로서의 도덕은 정치권력의 부패를 견제하지 못한다. 반대로 도덕이 목적이 되면 정치와 멀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면 도덕과 정치의 바람직한 결합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아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의 질문은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고, 이들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고전을 찾는다.

움직이는 세계, 움직이는 『논어』



김월희 (중어중문학과교수)

3,000여 종! 역대로 간행된 『논어(論語)』의 해설서 수라고 한다. 통계가 나온 지 꽤 됐고, 우리나라만 해도 약 200여 종이 넘는 『논어』 해설서가 출간되었다고 하니 지금까지 나온 『논어』 해설서 수는 훨씬 더 될 것이다. 여기에 서구에서 출판된 해설서 수까지 합한다면?

과연 『논어』는 전통시기 한자문화권을 대표하는 고전 중의 고전이라 할 만하다. 해설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논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는 소리요, 시대와 지역을 격하여 꾸준히 나왔다 함은 그것에 뭔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가치가 담겨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막상 『논어』를 접하면 그게 무엇인지

잘 잡히질 않는다. ‘인(仁) 과 ‘예(禮) 같은 덕목의 제시? 그들이 『논어』에서 길어낼 수 있는 주요 사상임은 익히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에 대한 설명이 체계적인 것은 아니다. 치밀한 설명은 고사하고 명쾌한 개념 정의조차 없다. 그저 공자의 말씀이 사례 중심으로 편린처럼 나열됐을 뿐이다.

게다가 『논어』는 잘 읽혀지지도 않는다. 첫 대목부터 살갑지 않다. “배우고 제때에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매우 맞는 말 같지만 웬지 공허하다. 배우고 익힘으로써 초래되는 결과가 즐거움을 유발할 수는 있을지언정, ‘배우고 익히는 것’ 그 자체가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말은 멋있지만 감동이 없다. 또한 흥미로운 고사도, 익살스런 풍자도 거의 없다. 가슴 저린 서정도, 흥미진진한 서사도 없다. 혹 삶의 교훈이나 귀감을 찾는 이라면 모를까, 『논어』를 통해 읽는 재미를 맛본다는 것은 사실 무척 난망한 일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논어』가 시대와 지역을 격하여 널리 읽히게 된 까닭이, 그래서 고전 중의 고전이 된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된다. 한 마디로 『논어』는 ‘허술’하다. 두루뭉술한 개념과 산만한 구성,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이해되는 언술과 조금만 진지하면 누구라도 얘기했을 법한 수준의 금언들. 세련됐다기보다는 소박하고, 심오하기보다는 친근하여 고전다운 풍모와 깊이를 지니지 못한 듯한 『논어』. 바로 이점 때문에 『논어』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힘을 지니게 된다. 딱 짜여 있지 않기에, 문면과 행간에 ‘틈’이 많기에, 역설적으로 『논어』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었다. 『논어』의 ‘틈’은 허술함이 아닌 풍부한 ‘변용(變容)’의 공간이었던 셈이다.

‘변용’은 읽는 이의 참여를 소환한다. 그래서 ‘틈’이 많다 하여 모든 텍스트가 고전이 될 수는 없음이다. 공자는 독자에게 『논어』의 ‘틈’을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로 메우라고 한다. 삶은 늘 움직이는 것이기에, 세련된 언설과 탄탄한 논리만으로는 그 전모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에, 그는 삶의 생생한 맥락 속으로 자신을 던져 넣으라고 한다.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세계 속에서 『논어』와 만나라고 한다. 그랬을 때 비로소 『논어』와의 만남이 생생적이라는 것이다.

삶이 움직이듯이 『논어』도 움직이는 배치. 이렇게 『논어』는 삶이란 구체적인 움직임을 통해 구현되고 입증됐던 것이니, 나의 삶이 『논어』의 주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논어』가 내 삶의 주석이 됨이다.